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문화성향에 따른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박 서 영¹⁾ 박 성 연^{*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 고통, 타인초점고통) 및 문화성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청소년 699명(평균연령:16.8세)으로 청소년용 자기보고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문제 분석 결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성과 자기초점고통 및 타인초점고통이 주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나 여자 청소년이 그리고 자기초점 고통이 낮고 타인초점 고통이 높을 때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는 성의 주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특히 자기초점고통이 낮은 경우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매개분석 결과 남아의 집단주의 성향은 낮은 자기초점 고통과 높은 타인초점 고통을 통해 지인이나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여아의 집단주의 성향은 높은 동정심, 타인초점고통 및 낮은 자기초점 고통을 매개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과 도덕적 정서 및 문화성이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밝히는 한편, 문화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함으로써 청소년기 친사회적 발달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친사회적 행동, 문화성향, 도덕적 정서,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방을 돋겨나 도우려는 어떤 의도를 가진 자발적인 행동

* 본 논문은 2012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박성연, E-mail: psy@ewha.ac.kr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박사

2)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으로 정의되며(Eisenberg, Fabes, & Spinrad, 2006), 그 종류로는 돋기, 나누기, 협력하기, 위로하기 등이 있다(Eisenberg, Cumberland, Guthrie, Murphy, & Shepard, 2005).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협력과 양보를 기본바탕으로 개인이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 심각성을 더해가는 청소년들의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따돌림 현상의 확산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개인중심적인 가치의 팽배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확대되어 가는 현대사회에서 인간행동의 긍정적 측면인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예측변인들이나 이를 발달시키는데 필요한 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그 관련변인으로 아동의 성이나 연령, 기질을 비롯하여 도덕적 추론능력이나 부모의 양육행동 및 또래의 영향이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왔다(예; 이옥경, 이순형, 1996; Edwards, C., & 하영희, 2005; Vasta, Miller, & Ellis, 2004). 그러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도덕적인 추론능력이나 부모 및 또래의 환경적 영향 뿐 아니라 인간행동의 기본적인 동기가 되는 정서적 특성 및 문화적인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Trommsdorff, Friedlmeier, & Mayer, 2007; Miller, Kozu, & Davis, 200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에 따른 차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되어왔던 정서와 문화적인 영향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친사회적 행동에서 성차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 또래친구에게 더 관대하고 협동적인 행동을 보이며(김태운, 2005; Bal-Tal, 1982), 감정이입정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Hastings, Rubin, & Deroose, 2005; Underwood & Moore, 1982). 이러한 성차는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적 기대나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감정이입적이고 이타적이라는 성역할 유형이 널리 받아들여져 왔고(Hastings et al., 2005; Eisenberg & Lennon, 1983), 여아는 남아와 달리 비경쟁적, 순종적, 감정적 행동에 대해 강화를 받기(이옥경·이순형, 1996)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이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여(한준수, 2000; Bar-Tal, Raviv & Leiser, 1980; Radke-Yarrow & Zahn-Waxler, 1984) 성차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일관적이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정서는 개인이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일어나며 목적지향적인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을 비롯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친사회적 행동은 외적인 보상 보다는 내적인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이기 때문에(Eisenberg & Mussen, 1989), 정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하는 내적 동기의 핵심이 된다. 국외에서 주로 이루어진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정서의 여러 특성 또는 내용 중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인지적으로 지각하여 감정을 이입하는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가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 공감을 해도 그 개인이

동정을 느끼는지 혹은 고통을 느끼는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은 달라질수 있다(Bischof-Kohler, 1991; Trommsdorff, Friedlmeier, & Mayer, 2007). 따라서 공감 자체보다는 정서적 특성 중 특히 동정과 고통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국외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동정(Sympathy)에 관한 것으로 동정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는 데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Bischof-Kohler, 1991; Eisenberg & Miller, 1987; Trommsdorff, Friedlmeier, & Mayer, 2007).

한편 공감으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 중 또 다른 정서 측면인 고통은 자기-초점 고통(self-focused distress)과 타인-초점고통(other-focused distress)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자기초점고통이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로 주의를 돌립으로써 희생자의 처지에 대한 감정이입(공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기 자신은 불편하고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대체로 자기초점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불쾌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현재 처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Young, Fox, & Zahn-Waxler, 1999). 이와 반대로 타인초점고통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대방의 정서에 더 깊게 몰입하게 되어(Trommsdorff et al., 2007), 고통이 증가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자기초점고통과는 달리 타인초점고통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보다 더 접근-지향적인 반응(approach-oriented reaction)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자기 스스로 너무나 감정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회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고통의 정서도 자기초점인지 타인초점고통인지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기초점과 타인초점 두 가지 고통유형 중 어떠한 고통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소수의 국외 연구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유아를 대상으로 고통을 자기초점과 타인초점 고통으로 나누지 않고 포괄적 의미에서의 타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느끼는 고통에 초점을 두어 연구한 Eisenberg와 Fabes(1998)는 고통을 보다 크게 느끼는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덜 나타낸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러나 고통을 자기초점 고통과 타인초점고통 두 가지로 나누어 유아를 대상으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Trommsdorff, Friedlmeier와 Mayer(2007)는 두 가지 고통 모두가 친사회적 행동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어, 고통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자기초점 고통이나 타인초점고통 모두 고통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rommsdorff 등(2007)의 해석에 의하면 자기초점 고통을 강하게 느끼는 경우 자신의 고통에 몰입되어 타인을 돋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억제될 수 있다. 한편, 타인초점고통은 타인의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는 하나 특히 유아의 경우 경험부족이나 자기효능감 부족으로 남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이 덜 나타날 수 있다.

Trommsdorff 등(2007)의 이러한 해석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의 아동에게 적용되기는 힘들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유아의 경우에는 친사회적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친사회적 행동이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겪으면서 사

회적 관계에 노출되는 경험을 많이 하였고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대한 반응행동이 충분하게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유아와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말하자면, 청소년들의 경우 자기초점고통이 느껴졌을 때는 유아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한 회피행동이 나타나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타인초점고통을 많이 경험할 경우 유아와 달리 그동안의 사회화 경험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인지발달을 통한 도덕적 추론능력을 통해 적절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동안의 친사회적 행동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오지 않았던 정서 특히, 동정과 고통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정서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한편, 친사회적 행동은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Eisenberg 와 Mussen(1989)에 의하면 부모나 또래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며 개인의 요구나 만족보다는 집단 내 요구와 조화를 더 강조하는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들의 경우에는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들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연구결과도 있어,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이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보다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Friedlmeier & Trommsdorff, 1999; Miller, Kozu, & Davis, 2001).

이같은 연구결과들 간의 불일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문화 간의 차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표현이 상황적 맥락이나 대상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데 기인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유아가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유아

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나타낸다는 결과를 보고한 Trommsdorff 등(2007)은 집단주의 문화의 아동은 낯선 성인과의 상호작용 기회도 적을 뿐더러 특히 성인과 함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돋는 행동을 하기 보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Whiting과 Whiting(1975)은 낯선 성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와는 다르게 가족이나 집단과의 조화가 중요시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라는 아동은 모르는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원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특히 높게 나타낸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근거해볼 때, 집단주의문화에서는 자신의 집단 내 일원을 돋는 것은 의무적인 사항이라 여김으로써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나, 자기가 속한 집단 외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문화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친사회적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집단내 사람인 지인인지 혹은 낯선 사람인 타인인지 그 대상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는 아동이 느끼는 정서적(본 연구에서는 동정과 고통)경험에도 영향을 미쳐 친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문화와 정서표현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뿐 아니라 정서표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한다(Friedlmeier & Trommsdorff, 1999; Miller, Kozu, & Davis, 2001; Trommsdorff et al., 2007). 예를 들어, Trommsdorff 등(2007)에 따르면, 실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유아와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유아 간에 동정이나 티인초점고통의 표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초점고통에서는 차이를 보여 집단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이 개인주의문화에서 자란 아동보다 자기초점고통을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문화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는 직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과 동시에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두 문화권 모두에서 동정을 나타낸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표현하였으나, 자기초점고통이나 타인초점고통을 나타낸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표현하였다 (Trommsdorff et al., 2007). 즉, 같은 문화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동정을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는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가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정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문화와 정서는 독립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정서가 상호작용하여 또는 문화가 정서를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관은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양분되어 연구되기도 하지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문화적 성향은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집단간 차이보다 집단내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Killen & Wainryb, 2000; Oyserman, Coon, & Kemmelmeier, 2002).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성향 역시 일률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집단주의 가치관이 개인주의 가치관보다 높은 집단주의성향자와 개인주의 가

치관이 집단주의 가치관보다 높은 개인주의성향자로 나누어질 수 있다(조궁호 · 김지용,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문화성향을 집단주의의 점수가 높고 개인주의 점수가 낮은 집단주의성향과 개인주의 점수가 높고 집단주의 점수가 낮은 개인주의성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을 토대로 본 연구는 정서적 특성인 동정(Sympathy) 및 고통(Distress)과 문화성향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성향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이 청소년의 정서나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청소년의 성, 문화성향과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는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는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수도권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총 699명(남학생 357명, 여학생 312명)으로 전체 학생 평균 연령은 16.7($SD=6.3$)세이다. 이 시기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근거는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정체감을 성취하는 발달과업에 직면하여 자신이 속한 문화권 내에서 문화적 정체감 또한 발달시켜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Eisenberg et al., 2006). 본 연구 대상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계수준은 대체로(55.9%) ‘중’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앞서, 특히 청소년의 정서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측정도구를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 개발하기 위해 Interpersonal Reactivity Scale(Davis, 1980)와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Measure(APB, Asiye, 2002)의 문항을 참고한, 두 차례에 걸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로는 문항 구성을 위해 청소년 80명(남학생 40명, 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1차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성된 정서와 친사회적 행동 척도문항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한편, 문화성향에 관한 척도(김기범, 1996)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120명(남학생 60명, 여학생 60명)에게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완성된 질문지를 사용해 서울과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본조사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및 이상치(Outlier)가 있는 자료들을 제외하고 총 669부가 문화 성향집단 구분에 사용되었으며 연구문제 분석은 개인주의성향과 집단주의성향으로 대표되는 총 255명(개인주의 문화성향 127명, 집단주의 문화성향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주의성향과 집단주의성향 집단구분은 중앙치를 기준으로 집단주의 점수가 높고 개인주의 점수가 낮은 경우 집단주의성향으로 개인주의 점수가 높고 집단주의 점수가 낮은 경우 개인주의성향으로 하였다.

측정도구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 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에 대한 질문지는 Davis(1980)의 Interpersonal Reactivity Scale을 참고로 하여, 80명(남학생 40명, 여학생 40명)의 청소년을 인터뷰한 후, 신뢰도 분석과 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다. 인터뷰 과정에서 원척도의 대인간 공감을 느끼는 상황을 참조하여 각 상황에서 공감 이후 느껴지는 구체적 정서를 보고하는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도덕적 정서의 3 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작성하였다. 이 후, 2차 예비조사를 토대로 구성된 척도문항의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완성된 도덕적 정서 척도는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정은 7문항, 자기초점고통은 6문항, 타인초점고통은 7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청소년들은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상대방을 보았을 때의 감정에 관해 각각 그 일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동정 문항의 예로는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마음이 쓰인다’, ‘가족이 힘들어할 때 걱정이 된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초점고통 문항의 예로는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데 귀찮음을 느낀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기가 귀찮고 싫을 때가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타인초점고통 문항의 예로는 ‘친구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해져 괴롭다.’, ‘상대방의 불행으로 인해 슬프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어 힘든 적이 있다.’ 등이다. 한편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에 포함된 각 문항들이 그 척도 내용을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법을 이

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모두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들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로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는 동정은 .80, 자기초점고통은 .72, 타인초점고통은 .81로 나타났다.

문화성향 청소년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Singelis, Triandis, Bhawuk와 Gelfand(1995)의 INDCOL(Individualism–Collectivism)을 Kim과 Kim(1997)이 우리나라 판으로 표준화한 문화성향 질문지에 관한 척도이다. 개인주의 문항의 예로는 ‘나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어느 경쟁에서나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를, 집단주의 문항의 예로는 ‘내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동료가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개인주의 .78, 집단주의는 .84로 나타났다.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질문지는 As nye(2002)의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Measure(APB)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기초로 문항을 구성하고 신뢰도 분석과 전문가 2인의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본 연구자가 직접 개발하였다. As nye(2002)의 Adolescent Prosocial Behavior Measure(APB)의 척도에서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중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항을 참조하였으며, 인터뷰를 통한 예비조사에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중 부모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문항을 보완하고, 친구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항을 추가한 후, 2차 예비조사를 통하여 신뢰도 검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완성된 친사회적 행동 척도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2가지 척도로, 지인 친사회적 행동은 15문항, 타인 친사회적 행동은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청소년 보고용 척도이다. 측정 내용은 도움이나 위로가 필요한 상대방을 보았을 때의 행동에 관해 각각 그 일치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항의 예로는 ‘나는 부모님께서 기분 상하신 일이 있으실 때 이야기를 들어드린다’,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할 때 함께 도와준 적이 있다.’ 등이며,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낯선 사람이 들고 가는 물건 등을 들어준 적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한 적이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들이 각 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추출법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40이상인 문항들로만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묶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Cronbach's α 신뢰도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90,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85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5.0을

표 1.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문화성향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변인	개인주의(n=127)		집단주의(n=128)		ANOVA F		
	남자(n=73)	여자(n=54)	남자(n=60)	여자(n=68)	문화성향(C)	성별(G)	C X G
M(SD)	M(SD)	M(SD)	M(SD)				
동정	3.61 (0.58)	3.83 (0.60)	4.20 (0.45)	4.23 (0.50)	53.40***	3.99*	1.44
자기초점고통	2.81 (0.64)	2.56 (0.62)	2.06 (0.59)	2.11 (0.55)	57.83***	1.59	3.48
타인초점고통	2.70 (0.71)	3.02 (0.71)	3.20 (0.84)	3.45 (0.64)	24.41***	9.27**	0.14
지인	3.20 (0.69)	3.65 (0.48)	3.80 (0.61)	3.89 (0.39)	33.41***	13.63***	6.13*
친사회적행동	3.29 (0.63)	3.36 (0.65)	3.68 (0.70)	3.57 (0.52)	14.00***	0.05	1.25

* $p<.05$, ** $p<.01$, *** $p<.001$.

주) 점수범위: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1 - 7점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및 지인친사회적행동, 타인친사회적행동 1 - 5점

이용하였으며, 단순회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과정에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검증되었다.

결과

1. 기초분석

연구문제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변인들인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 및 지인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문화성향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문화성향은 정서 및 친사회적 행동의 모든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은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동정, 타인초점고통 정서와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은 집단주의성향 청소년

보다 자기초점고통 정서를 더 높게 나타냈다

성은 동정과 타인초점고통 정서 및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동정과 타인초점고통 정서 및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서 문화성향과 성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집단주의문화성향의 여학생이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행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성, 문화성향 및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가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성, 문화성향 및 정서가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에 앞서, 전체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변수들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듯이, 청소년의 성은 정서 중 동정($r=.16, p<.01$), 타인초점고통($r=.21, p<.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

표 2. 전체변수들간의 상관관계: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성향 청소년 ($N=255$)

	1	2	3	4	5	6	7
1.성별	-						
2.문화성향	.10	-					
3.동정	.16**	.44***	-				
4.자기초점 고통	-.11	-.45***	-.52***	-			
5.타인초점 고통	.21**	-.32**	.51***	-.36***	-		
6.지인 친사회적행동	.27**	.37*	.50**	-.46**	.52***	-	
7.타인 친사회적행동	.02	.24**	.43***	-.48**	.41***	.50***	-
<i>M</i>	3.96	2.41	3.08	3.62	3.47		
(<i>SD</i>)	(0.59)	(0.67)	(0.75)	(0.62)	(0.64)		

** $p<.01$, *** $p<.001$.

주)성별 더미변수화 함(남학생=0, 여학생=1)

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함(개인주의=0, 집단주의=1)

으나 자기초점고통과는 관계가 없었다.

또한, 청소년의 성은 친사회적 행동 중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r=.27, p<.001$)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

각 변수내 요인들간의 관계는 정서에서 동정은 자기초점고통($r=-.52, p<.001$)과는 부적 상관, 타인초점고통($r=.51, p<.001$)과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고통들 간의 관계에서는 자기초점고통과 타인초점고통($r=-.36, p<.001$)간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적 행동에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50, p<.001$).

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의 성과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성향 및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가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효과와 정서와 문화성향간

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인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각각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청소년의 성과 문화성향의 주효과 및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와 정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의 주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항이 함께 투입되었을 때는 문화의 주효과와 함께 문화와 자기초점고통간의 상호작용효과도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성과 문화성향 및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에서 보듯이 성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27, p<.001$), 여학생이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성향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2단계에서는 성이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고($\beta=.15, p<.01$), 타인초점고통, 자기초점고통, 동정, 문화성향의 순으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타인초점고통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29, p<.001$), 타인초점고통을 높게 느낄수록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초점고통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beta=-.20, p<.01$), 자기초점

표 3. 지인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정서 및 문화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5)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성	.27**	.15**	.15**
문화성향(A)		.13*	.09
동정(B)		.17**	.14
자기초점고통(C)		-.20**	-.21**
타인초점고통(D)		.29***	.32***
A X B			.14
A X C			.13
A X D			.11
R^2	.07	.41	.42
adj R^2	.07	.40	.41
ΔR^2		.34	.01
F	19.44***	35.17**	22.56***
(df)	(1,253)	(5,249)	(8,246)

* $p<.05$, ** $p<.01$, *** $p<.001$.

주)성별 더미변수화 함(남학생=0, 여학생=1)

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함(개인주의=0, 집단주의=1)

고통을 높게 느낄수록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정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17$, $p<.01$), 동정을 높게 느낄수록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문화성향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13$, $p<.05$),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한편, 문화성향과 정서 각각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한 3단계에서 성은 여전히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15$, $p<.01$), 문화성향과 정서 요인 중 동정이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은 사라졌으며, 타인초점고통, 자기초점고통 순으로 고통 정서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타인초점고통은 지인에 대

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32$, $p<.001$), 타인초점고통이 높을수록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난 반면, 자기초점고통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beta=-.21$, $p<.01$), 자기초점고통이 높을수록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였다. 그러나 문화와 정서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은 그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 3단계에서 전체 변인의 설명력은 42%였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청소년의 성과 문화성향 및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에서 보듯이 성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문화성향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독립적 영향을 살펴본 2단계에서, 문화성향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서는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동정의 순으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초점고통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beta=-.34$, $p<.001$), 자기초점고통을 높게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타인초점고통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25$, $p<.001$), 타인초점고통을 높게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정도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beta=.18$, $p<.05$), 동정을 높게 느낄수록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성향과 정서 각각의 상호작용변수를

표 4. 타인친사회적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 및 문화성향의 위계적 회귀분석(β)
(N=255)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성	.02	-.09	-.08
문화(A)		.06	.34*
동정(B)		.18*	.02
자기초점고통(C)		-.34**	-.51***
타인초점고통(D)		.25**	.23**
A X B			.07
A X C			-.63**
A X D			.06
R^2	.00	.32	.34
adj R^2	.00	.31	.34
ΔR^2		.32	.02
F	.14	23.43***	15.64***
(df)	(1,253)	(5,249)	(8,246)

* $p<.05$, ** $p<.01$, *** $p<.001$.

주)성별 더미변수화 함(남학생=0, 여학생=1)

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함(개인주의=0, 집단주의=1)

투입한 3단계에서는 정서 중 동정의 영향은 사라진 반면, 여전히 자기초점고통($\beta=-.51$, $p<.001$)은 부적으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타인초점고통($\beta=.23$, $p<.01$)은 정적으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문화성향의 주효과 및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의 상호작용효과($\beta=-.63$, $p<.01$)가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기초점고통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각각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그레프화 한 결과,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이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즉, 자기초점고통이 높은 경우 개인주의성향 청소년과 집단주의성향 청소년 모두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적게 나타난($M=37.86$, $SD=7.75$ vs. $M=38.13$, $SD=6.20$, $t=-.17$, n.s) 반면, 자기초점고통이 낮은 경우 집단주의성향 청소년($M=45.51$, $SD=6.84$)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M=42.80$, $SD=6.59$)에 비하여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15$, $p<.05$). (그림 1 참조). 마지막 3단계에서 전체변인의 설명력은 34%였다.

3.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의 매개역할

앞서 살펴보았던 표 1에서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문화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와 함께 투입되었을 때에는 그 영향력이 정서보다 작게 나타나거나 혹은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표 3, 표 4 참조). 그러므로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문화성향은 정서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매개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연구문제 2인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지인 또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서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가 매개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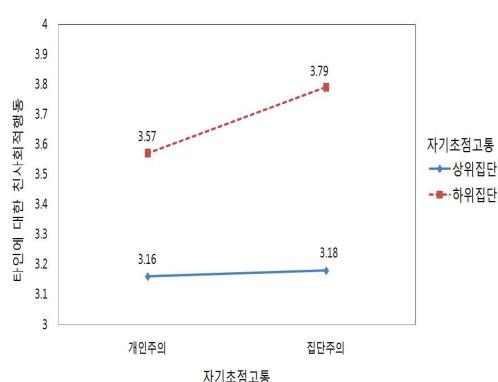


그림 1. 타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의 상호작용 효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남·여 청소년 각각에 대하여 문화성향과 정서 및 친사회적 행동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은 모든 연구변인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학생은 문화성향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인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모두 분석한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매개분석은 하지 않았다.

매개분석을 위해서는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세 단계 접근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토하기 위해 Sobel Test*방법을 사용하였다.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가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 각각을 대상으로 일련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성향은 동정($\beta=.47, p<.001$)과 타인초점고통($\beta=.2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자기초점고통($\beta=-.46, p<.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표 3 참조).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43, p<.001$).

표 5. 남학생의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133)

	1단계		2단계		3단계
	동정	정서	타인 초점 고통	지인	지인
		자기 초점 고통		친사회 적행동	친사회 적행동
문화성향	.47**	-.46***	.29*	.43***	.18'
동정					.07
자기초점 고통					-.24**
타인초점 고통					.37***
R^2	.22	.21	.09	.19	.42
adj R^2	.22	.21	.08	.19	.41
F	37.26**	35.49***	12.32**	30.40***	23.47**
(df)	(1,131)	(1,131)	(1,131)	(1,131)	(4,128)

* $p<.05$, ** $p<.01$, *** $p<.001$.

(주)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합개인주의=0, 집단주의=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정서 중 타인초점고통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beta=.37, p<.001$) 반면, 자기초점고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24, p<.01$), 동정의 영향은 사라졌다($\beta=.07, n.s.$). 한편, 청소년의 문화성향이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였다($\beta=.43, p<.001 \rightarrow \beta=.18, p<.05$). 이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타인초점고통($Z=3.73, p<.001$)과 자기초점고통($Z=2.76, p<.01$)의 부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

* Sobel test에서 분자는 각각 매개효과의 추정치, 분모는 매개효과의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를 나타내며 분모의 S_a 와 S_b 는 각각 추정치 a와 b에 대한 표준오차 값이다. $\alpha=.05$ 수준에서 Z_{ab} 값이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음(홍세희, 2007).

$$\text{Sobel test: } Z_{ab} = \frac{ab}{\sqrt{b^2 S_a^2 + a^2 S_b^2}}$$

생의 경우 문화성향은 직접 또는 타인초점고통과 자기초점고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서는 문화와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한편, 표 6에서 보듯이 여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성향은 동정($\beta=.36, p<.001$)과 타인초점고통($\beta=.32, p<.001$)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자기초점고통($\beta=-.35, p<.001$)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beta=.30, p<.01$).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 세 가지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정서 중 동정($\beta=.29, p<.01$)과 타인초점고통($\beta=.21, p<.05$)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자기초점고통의 영향은 사라졌다($\beta=-.17, n.s.$). 한편,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더 이상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07, n.s.$). 이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동정($Z=4.21, p<.001$)과 타인초점고통($Z=3.24, p<.001$)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의 경우 문화성향은 동정과 타인초점고통을 통해서만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는 문화와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화성향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정서의 매

표 6. 여학생의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122)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		지인			지인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친사회적 행동
문화성향	.36**	-.35***	.32**	.30***	.07										
동정					.29**										
자기초점고통															-.17
타인초점고통															.21*
<i>R</i> ²	.13	.12	.10	.09	.32										
adj <i>R</i> ²	.12	.11	.10	.09	.30										
<i>F</i>	17.95***	16.32***	13.98**	12.13*	13.91***										
(df)	(1,120)	(1,120)	(1,120)	(1,120)	(4,117)										

* $p<.05$, ** $p<.01$, *** $p<.001$.

주)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힘(개인주의=0, 집단주의=1)

개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표 7에서 보듯이 남학생의 경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첫 번째 단계에서 문화성향은 동정($\beta=.47, p<.001$)과 타인초점고통($\beta=.29, p<.01$)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자기초점고통($\beta=-.46, p<.001$)에는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두 번째 단계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27, p<.05$). 한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세 번째 단계에서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의 정서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정서 중 타인초점고통은 정적인 영향을 미친($\beta=.25, p<.01$) 반면, 자기초점고통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나($\beta=-.39, p<.001$), 동정의 영향은 사라졌다($\beta=.07, n.s.$). 또한, 청소년의 문화성향이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표 7. 남학생의 문화성향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적 역할에 대한 회귀분석(β)
(N=133)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	지인친사회적행동	지인친사회적행동
문화성향	.47**	-.46**	.29*	.27	.07
동정					.19
자기초점고통					-.39***
타인초점고통					.25**
R ²	.22	.21	.09	.07	.39
adj R ²	.22	.20	.09	.07	.37
F	37.26**	35.49***	12.32**	10.32**	20.33***
(df)	(1,131)	(1,131)	(1,131)	(1,131)	(4,128)

*p<.05, **p<.01, ***p<.001.

주)문화성향 더미변수화 함(개인주의=0, 집단주의=1)

은 사라졌다($\beta=.27$, $p<.05 \rightarrow \beta=.07$, ns). 이에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문화성향과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자기초점고통($Z=6.34$, $p<.001$)과 타인초점고통($Z=3.62$, $p<.001$)의 완전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문화성향은 자기초점고통과 타인초점고통을 통해서만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는 문화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논의

1. 청소년의 성과 문화성향 및 도덕적 정서(동정, 자기초점고통, 타인초점고통)가 지인 또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첫째 청소년의 성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어 여학생의 경우 지인을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와 더 협동적인 행동을 보이며 감정이입과 친사회적 행동 중 나누기를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Eisenberg & Lennon, 1983; Hastings, Rubin, & Derose,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여학생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남학생은 개인적인 성취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어 도덕적 판단기준이 다르다는 Gilligan(1982)의 도덕성 빌달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Gilligan에 의하면 여학생은 상대방에 대한 돌봄과 배려를 도덕성의 기준(morality of caring)으로 여기는 반면, 남학생은 정의를 도덕성의 기준(morality of justice)으로 하기 때문에 돋기와 위로하기 친사회적 행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는 타인초점고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초점고통, 동정, 문화성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타인초점고통을 느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기초점고통을 느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타인초점고통을 느낄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인다는 Trommsdorff 등(2007)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이들의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고 유아는 타인을 돋는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상대방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친사회적 행동이 적게 나타났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의 방법에 대해 많은 경험과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유아와는 다른 친사회적 행동양상을 보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타인초점고통은 상대방의 어려움에 더욱 크게 몰입되어 자신도 슬프거나 힘든 감정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다 더 접근-지향적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은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가 되지만 조망수용능력 및 도덕적 추론능력과 같은 인지발달에 따라 적절한 상황판단과 함께 상대방을 돋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어 보다 바람직한 친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연령의 아동과는 달리 상대방의 슬픔과 어려운 상황에 몰입되어 자신이 더 큰 고통을 경험하는 타인초점고통을 느낄 때에도 자신의 경험과 인지적 발달을 통해 학습하거나 생각해낸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돋거나 위로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슬퍼하는 동정을 느낄수록, 그리고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이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동정이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Bischof-Kohler(1991), Trommsdorff, Friedlmeier와 Mayer(2007)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은 곤란한 상황에 놓인 상대방을 보았을 때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적절한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될수록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자신과 친밀한 지인인 가족, 형제와 또래에 대하여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 및 조화의 가치관을 강조하며, 관심의 초점이 내집단의 통합에 맞추어져 자신과 친밀한 대인관계에서 양보와 협동을 추구한다는 이론을(조궁호 · 김지연 · 최경순, 2009; Rothbaum, Pott, Azuma, Miyake, & Weisz, 2000)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화성향과 정서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한 후에는 상대적으로 타인초점고통이 가장 크게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초점고통이 부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서 요인 중 고통정서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특히 타인초점고통은 친밀한 지인을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을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동정보다는 불편하거나 불안한 고통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상대방이 느끼는 정서에 몰입되어 고통을 느끼는 타인초점고통은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해소하고자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돋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되는 반면,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신이 성가시고 귀찮은 감정을 느낄 때에는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해소하고자 친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고 상황을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첫째 청소년의 성은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과는 상반된 결과로,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은 청소년의 성보다는 다른 변수가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는 자기초점고통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은 타인초점고통과 동정이 영향을 미쳤다. 즉 낮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편하고 성가신 자기초점고통을 느낄수록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타인초점고통이나 동정을 느

낄수록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성향과 정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후에는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자기초점고통이 높은 경우는, 개인주의성향 청소년과 집단주의성향 청소년 모두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한 반면, 자기초점고통이 낮은 경우 문화 가치관의 영향에 의하여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은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덜 나타났을 수 있다.

청소년이 자기초점고통을 적게 느낌에도 불구하고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의 경우보다 돋거나 위로하는 행동을 적게 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개인주의성향이 높은 청소년 중 자기초점고통을 적게 느끼는 경우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도덕적 정서가 촉발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사람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정서상태가 자신에게 감정이입이 되는 공감과정을 거친 이후, 동정이나 고통의 정서가 유발되는데, 자기초점고통이 낮은 집단은 공감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서 유발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상호작용항을 포함시켰을 때 문화성향의 주효과가 나타난 것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문화성향이 타인의 친사회적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기초분석에서도 보듯이 문화성향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이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였다. 즉,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은 협동,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고, 개인주의성향 청소년은 개인적 생활, 경쟁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기 때문에(조궁호 · 김지연 · 최경순, 2009; Kagitcibasi, 2005;

Triandis, 1995), 관계중심적인 인간관을 가진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은 독립적인 개인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자기초점고통이 낮은 경우 문화 가치관의 영향에 의하여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은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보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성향 청소년들은 자신과 관련 없는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보다 덜 나타났을 수 있다.

반면, 위와 같은 해석은 개인주의문화에서 집단주의문화보다 전반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Miller, 1997; Persson, 2005)과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가치와 자율성을 강조하고 자기 유능감을 발달시키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이 격려되고 친사회적 행동 표현 또한 맥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상대방의 지위나 타인 또는 지인에 상관없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지인이나 타인 모두에게 친사회적 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 있으나,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특히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표현은 적게 나타날 수 있다(Friedlmeier & Trommsdorff, 1999; Miller, 1997; Persson, 2005; Triandis, 1995; Trommsdorff et al., 2007).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위의 선행연구에서의 해석간 불일치는 일반적으로 문화적 가치관을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로 양분해 온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내에서도 두 가지 가치가 공존한다는 입장(Kagitcibasi, 2005)을 취하여 개인주의가치관과 집단주의가치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문화성향을 비교한 데 기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전반에 걸친 문화집단 수준에서의 비교가 아닌 개인수준에서 문화성향을

비교한 것이므로 이전 선행연구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남·여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간 관계에서 도덕적 정서의 매개적 역할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역할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우 문화성향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기초점고통과 타인초점고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즉, 남학생의 문화성향은 직접적으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귀찮거나 성가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서인 자기초점고통과 상대방의 감정에 몰입되어 고통을 느끼는 정서인 타인초점고통을 통하여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학생의 경우, 문화성향은 동정과 타인초점고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상대방을 걱정하는 정서인 동정과 상대방의 감정에 몰입되어 고통을 느끼는 정서인 타인초점고통을 통하여 지인을 돋거나 위로하는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서는 남녀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와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문화성향이 직접적으로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정서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들 (Friedlmeier & Trommsdorff, 1999; Trommsdorff et

al., 2007)에 따르면, 집단주의 문화 유아들이 상대방이 어려움을 처했을 때 고통을 더 많이 표현했으며, 고통을 많이 보인 유아는 친사회적 행동을 낮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특성이 정서에 영향을 주며, 정서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문화는 정서에 영향을 주고 정서는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서의 매개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에서 정서의 매개적 역할이 발견되어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정서에 영향을 주고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은 문화성향과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매개하는 정서의 종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자기초점고통과 타인초점고통이 매개하는 반면, 여학생은 동정과 타인초점고통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 기초분석에서 보듯이, 성은 정서에 영향을 주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하여 자기초점고통을 더 많이 보고하였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동정을 더 많이 보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성별에 따라 표현하는 정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매개역할을 하는 정서에도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정이나 고통정서에 영향을 주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매개분석 결과, 남학생의 문화성향은 자기초점고통과 타인초점고통을 통해 간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정서는 완전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남학-

생의 문화성향은 귀찮거나 성가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정서인 자기초점고통과 상대방의 감정에 몰입되어 고통을 느끼는 정서인 타인초점고통을 통하여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의 성과 고통정서는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해서는 문화성향과 고통정서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문화성향과 자기초점고통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는 여아가, 그리고 자기초점고통이 낮고 타인초점고통이 높을 때 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 또한 성과 관계없이 집단주의성향의 청소년이 자기초점고통을 적게 느낄 때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동정은 타인, 지인 친사회적 행동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었다. 또한, 청소년의 문화성향은 직접적으로 또는 고통정서나 동정 등 정서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정서와 문화성향은 지인 및 타인에 대한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특히 문화는 정서를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의 자기보고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이나 주관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인지적 요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의 경우 인지적 특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서와 인지를 함께 고려한 연구도 이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실용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동안 인식되어왔던 도덕적 추론의 중요성 외에도 정서 또한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기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서의 정서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을 개인주의성향 청소년과 집단주의성향 청소년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친사회적 행동발달이 문화적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발달의 보편성과 함께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문화적 특수성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셋째,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정서와 문화성향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밝힘으로써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기범(1996). 대인관계 속에서의 도덕성과 내집단-외집단 구별: 문화비교 분석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태운(2005). 중고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경, 이순형(1996). 과제의 부담과 종류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17(1), 257-288.
- 조궁호, 김지연, 최경순(2009). 문화성향과 분노통제: 분노 수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1), 69-90.
- 조궁호, 김지용(2001). 문화성향, 자의식 유형과

- 공감수준.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2001년
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33-42.
- 한준수(2000). 개인특성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
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iye, K.(2002). Prosocial behavior within the
family context and its correlates among
Turkish early adolescents. Ph.D. Diss.
Nebraska-Lincoln Univ.
- Bal-Tal, D.(1982). Sequential development of
helping behavior: A cognitive-learning
approach. *Developmental Review*, 2, 101-124.
- Baron, R., & Kenny, D.(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Tal, D., Raviv, A., & Leiser, T.(1980).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Empirical
evid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16-524.
- Bischof-Kohler, D.(1991). The development of
empathy in infants. In M. E. Lamb & H.
Keller(Eds.), *Infant development:
Perspectives from German-speaking
countries*(pp. 245-273). Hillsdale, NJ:
Erlbaum.
- Davis, M.(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 in
Psychology*, 10, 85.
- Edwards, C., & 하영희(2005). 부모와 형제에 대
한 초기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
치는 부모애착, 사회경제적 지위 및 조망수용.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1) 43-57.
- Eisenberg, N., Cumberland, A., Guthrie, I.,
Murphy, B., & Shepard, S.(2005). Age
changes in prosocial responding and moral
reasoning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Adolescence*, 15, 235-260.
- Eisenberg, N., & Fabes, R.(1998). Prosocial
development. In N. Eisenberg(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5th ed., Vol.
3)*, NY: Wiley.
- Eisenberg, N., Fabes, R., & Spinrad, T.(2006).
Prosocial development. In W. Dam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ume 3: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5th edition. New York: Wiley.
- Eisenberg, N., & Lennon, R.(1983). Gender
differences in empathy and related capacit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100-131.
- Eisenberg, N., & Miller, P.(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10, 91-119.
- Eisenberg, N., & Mussen, P.(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iedlmeier, W., & Trommsdorff, G.(1999).
Emotion 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German
and Japanese toddl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 684-711.
- Gilligan(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stings, P., Rubin K., & Derose, L.(2005).
Links among gender, inhibition, and parental

- socializ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51(4), 467-493.
- Kagitcibasi, C.(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Killen, M., & Wainryb, C.(2000). Independence and interdependence in diverse cultural contexts. In S. Harkness & C. Raeff(Eds), *Variability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child*(pp.5-21). San Francisco: Jossey-Bass.
- Kim, K., & Kim, U.(1997). Conflict, ingroup and outgroup distinction and mediation: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In K. Leung, U. Kim, S. Yamaguchi, & Y. Kashima(Eds.), *Progress in Asian social psychology*(Vol. 1, pp. 247-259). Singapore:Wiley.
- Miller, J.(1997). Cultural conceptions of duty: Implications for motivation and morality. In D. Munro, J. F. Schumaker, & S. Carr(Eds.), *Motivation and culture*(pp. 178-192). New York: Routledge.
- Miller, P., Kozu, J., & Davis, A.(2001). Social influence,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W.Wosinska, R.B.Cialdini, D.W.Barrett, & J. Reykowski(Eds.), *The practice of social influence in multiple cultures*. Applied social research series(pp. 63-77). Mahwah, NJ: Erlbaum.
- Oyserman, D., Coon, H., & Kemmelmeier, M.(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 3-72.
- Persson, G.(2005). Young children's prosocial and aggressive behaviors and their experiences of being targeted for similar behaviors by peers. *Social Development*, 14, 206-228.
- Radke-Yarrow, M., & Zahn-Waxler, C.(1984). Roots, motives, and patterns i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 In E. Staub, D. Bar-Tal, J. Karylowski, & J. Reykowski(Eds.),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prosocial behavior: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ositive behavior*(pp. 81-99). New York: Plenum Press.
- Rothbaum, F., Pott, M., Azuma, H., Miyake, K., & Weisz, J.(2000). The development of close relationship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aths of symbiotic harmony and generative tension. *Child Development*, 71, 1121-1142.
- Singelis, T., Triandis, H., Bhawuk, D., & Gelfand, M.(1995). Horizontal and vertica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 theoretical and measurement refinement. *Cross-Cultural Research*, 29(3), 240-275.
- Triandis, H.(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 Trommsdorff, G., Friedlmeier, W., & Mayer, B.(2007). Sympathy, distress, and prosocial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 in four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1(3), 284-293.

- Underwood, B., & Moore, B.(1982). Perspective-taking and altruism. *Psychological Bulletin, 91*, 143-173.
- Vasta, R., Miller, S., & Ellis, S.(2004). *Child Psychology*(4th ed). New Jersey: John Wiley & Sons, Inc.
- Whiting, B., & Whiting, J.(1975). *Children of six cultures: A psychol-cultural analysi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Young, S., Fox, N., & Zahn-Waxler, C.(1999). The rela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empathy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189-1197.

1차 원고 접수 : 2012. 04. 15

수정 원고 접수 : 2012. 05. 19

최종제재결정 : 2012. 05. 21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and Prosoci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Seo-young Park Seong-Yeon Park

Dept. of Child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sympathy–distress emotion and prosocial behaviors on the adolescents' cultural dispositions toward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699 adolescents(mean age= 16.7; 357 males, 312 females) from high schools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 questionnaires.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 First, adolescent's sex and distress emotion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toward familiar persons, whereas cultural dispositions and distress emo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toward strangers. A moderating effect of self-focused distress in the links between adolescents' cultural disposition and prosocial behavior was also found. Specifically, when adolescents' self-focused distress is low, Collectivism-oriented adolescents showed more prosocial behavior toward strangers than did Individualism-oriented adolescents. Second, Adolescents' emotion acted as a mediator between adolescents' cultural disposition and prosocial behaviors. That is, adolescents' cultural disposition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through experienced emotions) their prosocial behavior toward both familiar persons and strangers. This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dolescents' sympathy–distress emotion and Individualism–collectivism cultural disposition in predicting adolescents' prosocial behaviors.

Keywords: prosocial behavior, cultural disposition, sympathy–distress emotion